

드라마에 나타난 죽음, 자살 분석과 대안으로서의 웰다잉(well-dying), 웰에이징(well-aging) 연구

권온¹, 김문준², 황혜정³, 구진희⁴, 김광환^{5*}

¹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²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³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⁴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⁵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Death, Suicide Analysis in the Drama and a Study of Well-dying, Well-aging as an Alternatives

On Kwon¹, Moon-Joon Kim², Hye-Jung Hwang³, Jin-Hee Ku⁴, Kwang-Hwan Kim^{5*}

¹WellDying Convergence Laboratory, Konyang University

²Humanity College, Konya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⁴The college of SW liberal arts, Mokwon University

⁵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드라마에 제시된 죽음 또는 자살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속성을 도출한 후 해결책 또는 대안으로서의 웰다잉 요소, 웰에이징 요소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기간 및 대상은 2013년~2020년에 공개된 드라마 또는 동영상 자료 17편이다. 조사 방법은 죽음과 자살, 연령대, 성별, 인물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 자살은 4편의 드라마에 해당하였다. 죽음을 다룬 드라마는 13편이었다. 대상자들은 대부분의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관련 11건, 여성 연결 5건, 남성과 여성 포괄 적용 1건 등이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울 수 있는 인물들을 점검하였다. 조사한 드라마 중 웰다잉, 웰에이징의 관점에서 벗어난 경우는 17편의 드라마 중 14편이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의 죽음, 자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대안으로서의 웰다잉, 웰에이징 가치를 사회적지지, 가족, 사랑,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에서 파악하였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 한국사회의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ath or suicide phenomena in dramas, derive the negative attributes inherent in them, and study well-dying and well-aging factors as a solution or alternative to issues identified by the analysis. The survey period and target are 17 drama or video materials released between 2013 and 2020. The survey method was applied using variables such as death and suicide, age group, gender, and person.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suicide was in the contents of four dramas. There were 13 dramas about death. The subjects were evenly distributed in most age groups. The result of gender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11 cases of suicide or death related to men, 5 cases connected to women, and 1 case of comprehensive male and female application. The people who could help the subjects while being at the closest place were also checked. Among the dramas surveyed, 14 out of 17 dramas deviate from the perspective of well-dying and well-aging.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a solution or alternative to overcome issues related to death and suicide in our society. This alternative or solution is the well-dying and well-aging values identified in social support, family, lov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It is hoped that the well-dying and well-aging concepts will alleviate Korean society's polarization in the non-face-to-face era after COVID-19.

Keywords : Social Support, Family, love, Self-Efficacy, Self-Esteem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onyang University)

email: kkh@konyang.ac.kr

Received December 7, 2021

Revised December 28,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본 연구는 드라마(drama)[1]에 제시된 죽음 또는 자살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속성을 도출한 후 해결책 또는 대안으로서의 웰다잉 요소, 웰에이징 요소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드라마에서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죽음이나 자살 현상의 배후에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시된다.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노출하는 죽음의 유형으로는 타인에 의한 죽음 곧 타살, 피살, 추락사 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문제점을 자살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분석으로 고찰한 선행 연구[2]를 참조할 수 있다. 곧 한국 성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살생각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청·장년기 대상자는 불안, 우울, 약물 복용과 삶의 질 등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중년기 대상자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노년기 대상자는 체질량지수, 스트레스, 삶의 질 등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죽음과 자살 현상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표현된 매체가 드라마이다. 드라마에서 제시되는 죽음이나 자살 양상은 웰다잉 또는 웰에이징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았다. 한국 드라마에 제시되는 부정적인 결과로서의 죽음 또는 자살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그것의 대안으로서 웰다잉 요소와 웰에이징 요소를 탐색할 것이다.

웰다잉, 웰에이징 요소 고찰을 위해서 본 연구가 주목한 매체는 드라마이다. 드라마라는 매체에 주목한 우선적인 이유는 드라마가 우리 일상에 매우 친숙하기 때문이다. 드라마가 확보하고 있는 일반성 또는 보편성이라는 성질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타당성이나 당위성 또는 설득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죽음이란 인구통계학적이고, 의학적인 현상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죽음을 제대로 고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로서의 죽음을 회피하다가 갑작스럽게 자신, 가족, 지인 등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3].

죽음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철학, 의학, 사회과학, 종교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과학 측면에서 죽음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죽음에 대한 고찰, 죽음태도와 불안 등 인지·정서적 요인, 죽음교육, 자살, 사별 등이 있다[3].

자살은 존재와의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행위이며, 사회

와 집단에 충격과 영향을 준다. 자살은 자살하고자 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갖고 계획하는 예비단계, 자살 의사 결정 확정 및 자살을 시도하는 실행단계,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최종단계의 순서를 갖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4].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로 인해 자살에 대한 연구는 정신의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텍스트분석을 시행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살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었다[4].

한국사회의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인다. 그것은 또한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죽음과 관련된 결정을 가족과 공유하여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우리사회의 웰다잉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전 생애에 걸친 능동적인 죽음준비 과정이다[5].

또한 ‘웰에이징’이란 ‘노화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활동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늙어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6].

연구 대상으로서의 드라마는 공통적으로 ‘죽음’ 또는 ‘자살’을 다룬다. 우리는 각각의 드라마에 담긴 죽음 또는 자살에 관한 유의미한 견해[7]들을 수집한다. 또한 그러한 견해와 웰다잉 요소, 웰에이징 요소의 결속성을 파악한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 자살 현상 분석이나 웰다잉, 웰에이징과의 관련성 고찰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의 드라마에서 형상화되는 죽음이나 자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웰다잉, 웰에이징의 관점에서 부적절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드라마에 제시되는 부정적인 속성으로서의 죽음, 자살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웰다잉, 웰에이징 요소의 탐색을 목적한다. 그것은 웰빙[8], 웰니스 등과 연결되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웰다잉, 웰에이징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내재적 가치이기도 하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수집한 17편의 드라마 또는 드라마에 근접한 동영상이나 기록물이다. 죽음이나 자살을 주제로 보여주는 드라마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드라마에 주목한 선행 연구

Table 1. 17 Dramas(Video materials)

N	Title	Source	Upload date	Replay time
17-1	Drama <Defendant>	SBS	2017. 1. 23	2:12.
17-2	Student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Data video <Damper> (for middle school students)	Student mental health support center	2018. 5. 15	13:44.
17-3	Drama <The k2>	tvN	2016. 11. 6	4:33
17-4	Drama <Save me>	Diggle(OCN)	2020. 3. 21	11:25
17-5	Drama <The penthouse>	SBS	2020. 11. 5	21:52
17-6	Drama <Sky castle>	JTBC	2019. 1. 12	10:37
17-7	Drama <Dodo sol solala sol>	KBS2	2020. 10. 7	2:14
17-8	Drama <Empress ki>	A moment M(MBC)	2016. 5. 10	5:10
17-9	Drama <Love to the end of the end>	KBS2	2018. 11. 6	4:28
17-10	Drama <The goddess of fire, jeong-i>	MBC	2013. 10. 21	4:22
17-11	Drama <Moonlight drawn by clouds>	KBS2	2016. 10. 18	3:36
17-12	Drama <Switch>	SBS	2018. 5. 4	3:42
17-13	Drama <'I'm a mother, too>	SBS	2018. 11. 2	2:53
17-14	Drama <Legend of the patriots>	KBS1	2020. 11. 17	10:18
17-15	Drama <Come back, mister>	SBS	2016. 4. 14	2:33
17-16	Drama <The secret man>	KBS2	2020. 9. 28	2:45
17-17	Suicide prevention documentary <Variant song>	Korea life respect hope foundation	2018. 12. 3	43:44

를 참조하여 진행하였다[9]. 각각의 드라마는 2분 12초부터 43분 44초에 이르는 다양한 재생 시간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는 죽음이나 자살 현상이 제시된다는 공통점이 보였다. 동영상 자료 또는 드라마의 제목, 출처, 업로드 날짜, 재생 시간 등을 상세하게 밝히면 Table 1과 같다.

2.2 조사방법

조사방법 또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시기(2021년)와 근접한 최신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드라마들의 출처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조사하여 설득력과 보편성을 높였다. 무엇보다도 드라마에 죽음 또는 자살 현상이 뚜렷하게 노출되거나 죽음이나 자살이 핵심 주제로서 다루어지는 경우를 특정한 후 죽음과 자살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죽음 대상자 또는 자살 대상자를 남성과 여성의 성별 구분에 의해 조사하였다. 또한 죽음 대상자 또는 자살 대상자를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등 연령대 구획에 의해 조사하였다. 죽음 또는 자살 상황에 노출된 당사자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근접한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을 조사하였다. 요약하자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활용한 변수로는 죽음과 자살, 성별, 연령대, 인물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4가지 조사방법과 웰다잉 또는 웰에이징의 수렴 관계는 7개의 Table(Table 2-1~Table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조사와 분석의 지향점으로 삼은 웰다잉, 웰에이징 요소는 사회적지지, 책임감, 자기희생, 가족, 사

랑,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이다. 이들 요소는 이어지는 연구결과와 고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상기(上記)한 <Table 2-1>~<Table 2-3>과 같다. <Table 2-1>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기준에 의해 죽음이나 자살 대상자를 구분하였다. <Table 2-2>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라는 연령대 기준에 의해 죽음이나 자살 대상자를 구분하였다. <Table 2-3>은 중년기와 장년기라는 연령대 기준에 의해 죽음이나 자살 대상자를 구분하였다.

성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17편의 드라마 중에서 죽음이나 자살 대상자로서 남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11편이고 여성이 제시되는 경우는 5편이다. 다만 자살예방 다큐드라마 <변주곡>에는 실제 남녀 고등학생들이 출연하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 등장한다. 남성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11편의 드라마를 분석한 결과 7편에서 죽음이 실현되고 2편에서는 자살이 실행되었다. 반면 여성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5편의 드라마에서는 5편 모두 죽음이 실현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죽음이나 자살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자살의 경우 남성만 실현에 이르렀다. 드라마들이 한국사회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남

Table 2-1. Death or suicide by gender

N	Gender							
	Men's 11+1 episodes(including men and women)				Women's 5+1 episodes(including men and women)			
	Death		Suicide		Death		Suicide	
	yes	no	yes	no	yes	no	yes	no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7-10	○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

*17-17 Soon, the suicide prevention documentary drama "Variation Song" produced historical facts or actual events in the form of a drama. Since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ppear evenly here, both male and female in terms of gender.

Table 2-2. Death or suicide by age group 1

N	Age Group 1							
	5 Adolescence episodes(13-18 years old)				5 Youths episodes(19-34 years old)			
	Death		Suicide		Death		Suicide	
	yes	no	yes	no	yes	no	yes	no
17-1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17-8					○			
17-9								
17-10					○			
17-11					○			
17-12								
17-13					○			
17-14								
17-15								
17-16								
17-17				○				

Table 2-3. Death or suicide by age group 2

N	Age Group 2							
	4 Middle-aged episodes(35-49 years old)				3 Mature episodes(50-64 years old)			
	Death		Suicide		Death		Suicide	
17 cases	yes	no	yes	no	yes	no	yes	no
17-1	○							
17-2								
17-3								
17-4								
17-5								
17-6								
17-7					○			
17-8								
17-9	○							
17-10								
17-11								
17-12					○			
17-13								
17-14	○							
17-15			○					
17-16					○			
17-17								

성이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주 죽음에 노출되고 특히 비극적인 죽음의 형태인 자살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연령대 기준으로 살펴보면 17편의 드라마 중에서 죽음이나 자살 대상자가 청소년기(13세~18세)에 속하는 경우는 5편이고, 청년기(19세~34세)에 해당하는 경우도 5편이다. 중년기(35세~49세)에 속하는 경우는 4편이고, 장년기(50세~64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3편이다. 청소년기에는 2편에서 죽음이 실현되고 1편에서 자살이 실행되었다. 청년기에는 4편에서 죽음이 실현되었고 중년기에는 3편에서 죽음이 실현되고 1편에서 자살이 실행되었다. 장년기에는 3편에서 죽음이 실현되었다. 노년기(65세 이상)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죽음이나 자살이 골고루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자연사(自然死)로서의 죽음이 아닌 타인에 의한 추락사(墜落死) 등 부정적 결과로서의 죽음이 만연하고 죽음의 비극성이 극대화하는 자살 역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성별, 연령대, 인물 등의 기준에서 도출된 죽음과 자살 현상 전체가 웰다잉이나 웰에이징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17편의 관련 자료들 중에서 죽음 또는 자살이 실현된 경우는 14편으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나머지 3편에서는 죽음이나 자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들 자료에서 죽음 또는 자살 현상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은 이후 상황에 따라서 웰에이징, 웰다잉 측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정적인 삶의 마무리로서의 죽음과 자살이 실제로 이루어진 14편에서도 우리는 웰에이징, 웰다잉 요소이자 가치이며 기준으로서의 사회적지지, 책임감, 자기희생, 가족, 사랑,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을 파악하였다.

3.1 드라마 속 죽음과 자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일차적인 주제는 드라마에서 수행되는 죽음이다.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르는 죽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런 까닭에 여러 유형의 죽음이 존재한다. 죽음 중에서 가장 특이한 유형의 죽음으로서 자살(自殺, suicide)이 있다. 자살은 당사자 스스로 자기 목숨 또는 생명을 종료하는 행위 또는 상태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죽음과 죽음의 특수한 유형으로서의 자살 사이에는 적잖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일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들은 도합 17편인데 이를 죽음과 자살로 나누어 보면 죽음을 다루는 경우가 13편이고 자살을 다루는 경우는 4편이다.

동영상들 중에서 죽음을 다룬 드라마로는 17-1, 17-3, 17-5, 17-6, 17-7, 17-8, 17-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6 등 13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12편은 드라마 속에서 죽음이 실현되었고 1편은 드라마 속에서 죽음이 실현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죽음을 주제로 삼은 13편의 드라마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니 드라마들에서 재현되는 죽음 양상은 다양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죽음 유형으로는 특정한 등장인물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경우 곧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황후>, <불의 여신 정이>, <구르미 그린 달빛>, <스위치> 등이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일 곧 '자기희생(自己犧牲)'은 쉽지 않다. 어떤 인물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다른 이를 위해 대신 죽음을 선택한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그 이유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사랑'이다[10]. 타인에 의한 추락사 역시 기억할만한 죽음 유형인데 <펜트하우스>와 <SKY 캐슬>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들 드라마에는 타인에 의한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려는 불온한 시도가 제시된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의 문턱에 도달하려는 순간 상류층 또는 기득권층의 개입으로 몰락하는데 이와 같은 드라마 전개는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동영상들 중에서 자살을 다룬 드라마로는 17-2, 17-4, 17-15, 17-17 등 4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2편은 드라마 속에서 자살이 실현되었고 2편은 드라마 속에서 자살이 실현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자살을 주제로 삼은 4편의 드라마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4편의 자료 중 자살예방 <변주곡>은 다큐드라마(docudrama) 곧 역사적 사실 또는 실제 사건을 드라마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현실 속 인물들이 실명으로 등장한다. 그에 비해서 학생자살예방 교육자료 동영상 <변성기>(중학생용)는 드라마로서의 속성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곧 호운, 지양 등 자료 속 인물은 현실의 인물이 아닌 예술 작품이나 방송극의 등장인물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주곡>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성기>는 각각 '다큐드라마'와 '드라마'에 가까운 동영상으로서의 개별 속성을 갖는 동시에 '학생자살 예방'이라는 공통 속성을 보여준다. <구해줘>는 OCN에서 방송된 텔레비전 드라마로서 학교 내 괴롭힘에 따른 자살 문제를 탐색한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변성기>나 <변주곡>과는 달리 <구해줘>는 성인 배우가 학생 역할을 맡아서 드라마의 극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상의 학생 관련 괴롭힘이나 폭력 또는 자살을 예방함에 있어서 '사회적지지'[11]는 대단히 효과적인 요소

가 될 수 있다. <돌아와요 아저씨>는 다른 3편의 자료와는 달리 학생자살 문제와는 무관하다. 여기에는 오빠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여동생의 애인에게 여동생의 안녕을 부탁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위 사항을 요약하면 하기(下記)한 <Table 3>과 같다. <Table 3>은 드라마들을 죽음과 자살 기준에 의해 구분하였다.

Table 3. Death and suicide in the drama

N	Death		Suicide	
	13 cases		4 cases	
17 cases	yes	no	yes	no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7-10	○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3.2 성별에 따른 죽음 또는 자살

죽음 대상자 또는 자살 대상자를 성별에 의해 분석하였다. 드라마 자료에는 죽음이나 자살이 실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죽음 대상자 또는 자살 대상자의 성별은 드라마 또는 동영상에서 설정된 성별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되 전후 문맥을 감안하여 바로잡을 대목은 수정하였다.

드라마 자료에서 죽음 대상자 또는 자살 대상자를 성별에 의해 분석한 결과 남성과 관련된 경우가 11건이었고 여성과 연결된 경우는 5건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남성 관련 11건 중 7건은 죽음이 실현되었고 1건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2건은 자살이 실현되었고 1건은 미수에 머물렀다. 여성 관련 5건은 5건 모두 죽음이 실현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1건은 공통적으로 '자살'이 실현되지 않고 미수에 머물렀다.

주목을 끄는 바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죽음 또는 자살 현상과 마주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

것은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여전히 가장(家長)으로서의 무게 또는 책임감을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또한 거기에는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장남(長男)으로서의 책임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사회의 남성이 '자기 효능감'[12]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비극적인 죽음이나 자살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자신감을 높인다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위 사항을 요약하면 하기(下記)한 <Table 4>와 같다. <Table 4>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죽음 또는 자살 대상자들을 성별 기준에 의해 구분하였다.

Table 4. Gender specific death or suicide

Condition \ Gender	Men	Women
Death yes	7	5
Death no	1	0
Suicide yes	2	0
Suicide no	1+0.5(*)	0+0.5(*)
Drama cases	11.5	5.5

Of the 17 surveyed films 17-17 the suicide prevention documentary drama "Variation Song" produced historical facts or actual events in the form of a drama. Since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ppear evenly here, both male and female in terms of gender. In the table above, two 0.5() marks of male and female items mean 17-17.

3.3 연령대에 따른 죽음 또는 자살

죽음 대상자 또는 자살 대상자를 연령대 구분에 의해 분석하였다. 드라마 자료들에는 죽음이나 자살이 실현되는 경우와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죽음 대상자 또는 자살 대상자의 연령대는 드라마 또는 동영상에서 설정된 나이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장인물을 연기한 배우의 드라마 출연 당시 나이를 참조하여 기록하였다.

드라마 자료에 등장하는 죽음 대상자 또는 자살 대상자를 연령대 구분에 의해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13세~18세) 5건(17-2, 17-4, 17-5, 17-6, 17-17), 청년기(19세~34세) 5건(17-3, 17-8, 17-10, 17-11, 17-13), 중년기(35세~49세) 4건(17-1, 17-9, 17-14, 17-15), 장년기(50세~64세) 3건(17-7, 17-12, 17-16), 노년기(65세 이상) 0건 등으로 구획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 5건 중 2건은 '죽음'이 실현되었고 1건은 '자살'이 실현되었으며 2건은 '자살'이 실현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청년기 5건 중 4건은 '죽음'이 실현되었고 1건은 '죽음'이 실현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중년기 4건 중 3건은 '죽음'이 실현되었고 1건은 '자살'이 실현되었다. 장년기 3건은 3건 모두 '죽음'이 실현되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죽음 또는 자살 관련 대상자들이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죽음 또는 자살 현상이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임을 암시한다. 이를 요약하면 상기(上記)한 <Table 5>와 같다. <Table 5>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죽음 또는 자살 대상자들을 연령대 기준에 의해 구분하였다.

3.4 죽음 또는 자살의 최후와 가장 긴밀한 인물

죽음 또는 자살의 마지막 순간에 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거나 위치할 수 있는 인물을 살피는 일은 유의미하다. 죽음 또는 자살 당사자의 최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을 더할 수 있는 인물들을 탐색하였다. 이번 절에 등재된 인물들을 분석하면 삶에서 유의미한 가치와 웰다잉 요소, 웰에이징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삶

Table 5. Death or suicide according to age group

Condition \ Age group	5 Adolescence episodes (13-18 years old)	5 Youths episodes (19-34 years old)	4 Middle-aged episodes (35-49 years old)	3 Mature episodes (50-64 years old)
Death yes	2	4	3	3
Death no	0	1	0	0
Suicide yes	1	0	1	0
Suicide no	2	0	0	0
Drama cases	5	5	4	3

을 마감하는 순간 가장 생각날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곁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 인물들 곧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동생 등 혈연관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족 다음으로는 연인이나 친구의 가능성이 높았고 그밖에 지인, 의료진, 게이트키퍼[gate keeper] 등도 있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을 더 잘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13]을 지닌 이들이다. 자아존중감을 확보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한국사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삶의 가치로서의 웰에이징 요소와 죽음의 의미로서의 웰다잉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위 사항을 요약하면 하기(下記)한 <Table 6>과 같다. <Table 6>은 죽음 또는 자살의 최후와 가장 긴밀한 인물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6. The person closest to the end of death or suicide

N	Person
17-1	Younger brother
17-2	Friend
17-3	Medical team
17-4	Younger sister
17-5	Mother
17-6	Friend
17-7	Daughter
17-8	Comrade
17-9	Father
17-10	Lover
17-11	Lover
17-12	Son
17-13	Boss
17-14	Son
17-15	Younger sister
17-16	Family(wife, daughter, younger brother)
17-17	Parents, sibling, friend, acquaintance, gatekeeper

4. 고찰

드라마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다. 그것은 문학적 형태로서의 희곡에서 유래된 연극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극장 등에서의 공연을 포괄한다. 오늘날 통용되는 드라마의 개념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연속극(連續劇, soap opera)이다.

드라마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드라마는 대중에게 매

우 친숙한 매체이다. 드라마의 일반성 또는 보편성은 조사와 분석에 타당성, 당위성, 설득력 등을 제공하였다. 여기에서 채택한 드라마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드라마의 본질적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드라마 자료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이 죽음 또는 자살과 결합되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핵심 결과와 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을 다룬 13편의 드라마 자료를 검토한 결과 타살, 피살, 추락사 등 웰다잉, 웰에이징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죽음 유형이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죽음을 다루는 드라마들 중 4편은 등장인물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기희생의 경우에 해당하였다. 상당한 비중의 자료에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죽음을 형상화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웰다잉 요소, 웰에이징 요소가 견고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둘째, 자살을 다룬 4편의 드라마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사회에 자살이라는 이름의 불행한 죽음이 만연해 있고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10대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드라마 자료에서 죽음 또는 자살 대상자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관련된 경우가 11건이었고 여성과 연결된 경우는 5건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죽음 또는 자살 현상과 마주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드라마 자료에서 제시되는 죽음 또는 자살 관련 대상자들이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의 죽음 또는 자살 현상은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다섯째, 죽음이나 자살 상황에 있는 당사자의 마지막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구성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곧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동생 등 혈연관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당사자의 곁을 지킬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가족 다음으로는 연인이나 친구의 가능성이 높았고 그밖에 지인, 의료진, 게이트키퍼 등도 있었다. 향후 한 인간의 최후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인 가족에 관한 연구[14,15]가 추진된다면 웰다잉 또는 웰에이징의 본질과 가치를 드높이는 것

은 물론이고 밝고 건강한 사회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코로나-19(COVID-19)대유행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에 도달하였다[16-19,25,26,29].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타살, 피살, 추락사, 사고사 등 부정적인 죽음의 증가로 우리국민의 삶은 지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영화 <기생충>[20]은 상류층과 하류층을 구분하고, 부자와 빈자를 분리하여 양극화를 형상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을 사실적이면서 은유적으로 담고 있는 매체인 드라마를 죽음과 자살, 연령대, 성별, 인물 등의 기준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우리는 노년층을 비롯한 누구나 성공적 노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기대한다[21,22].

특정 시기에 추출한 17편의 자료를 연구하였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내재하는 웰대잉, 웰에이징 요소를 밝힐 수 있었다. 사회적지지, 책임감, 자기희생, 가족, 사랑,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23,24,27,28]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웰대잉, 웰에이징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자 기준이다.

References

- [1] E. C. Kim & J. H. Kim, *Literature Theory*, 267-271, Seoul : Hankookmunhwasa, 2021.
- [2] S. Y. Bang,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by Life Cycle of Korean Adul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5), 60-70,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5.60>
- [3] S. H. Moon, Y. W. Hwang & S. H. Yoo, Research Trends on Death of Korean Middle-age,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8(01), 200, 2021.
DOI:<https://doi.org/10.46415/iss.2021.03.28.1.198>
- [4] J. E. Lee & J. Y. Yoo, An Analysis of Suicide Phenomenon in Korea by Using News Big Dat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03), 35, 2021.
DOI:<https://doi.org/10.5392/JKCA.2021.21.03.033>
- [5] K. H. Kim & Y. H. Park, Concept Analysis of Well-dying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03), 235, 2020.
DOI:<https://doi.org/10.5953/JMJH.2020.27.3.229>
- [6] D. R. Kim, K. H. Kang, A. Park, J. H. Lee & K. H. Kim, An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of Well-Aging Research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3), 196,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3.190>
- [7] H. K. Lee, A Living Text for Medical Humanities—The Embodiment of Illness and Meditations on Mortality in Wit, *The Journal of Drama*, 42, 2014.
<https://doi.org/10.15716/dr.2014..42.221>
- [8] J. H. Jang & Chao Chi, The Impacts of Chinese Student's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8),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8.133>
- [9] D. R. Kim & K. H. Kim, The Role of the Medical Person in the drama <Descendants of the Su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2017.
DOI:<https://doi.org/10.14400/JDC.2017.15.6.345>
- [10] C. H. Lee, A Theological and Ethical Study on Normative Nature of Love: Exploring Ethical Thoughts of Self-sacrificing Altruism,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7(1), 2015.
DOI:<https://doi.org/10.15757/kpit.2015.47.1.008>
- [11] K. M. Song & S. J. Cho,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perceived by Crisis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8),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8.433>
- [12] O. S. Kim, The Effect of Star Chef Image in Cookbang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Culinary Arts Major College Students in Gyeongju A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8),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8.405>
- [13] O. H. Koo,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7),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7.172>
- [14] C. H. Lee, The Study of the New Types of Family on Popular Television Dram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3), 2019.
DOI:<https://doi.org/10.35873/ajmahs.2019.9.3.030>
- [15] S. J. Yun, A Study on the Aspects of Family Liberalization in Korean Television Family Drama—Focusing on KBS2 TV Weekend Soap Operas,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4), 2019.
DOI:<https://doi.org/10.24227/jkl.2019.02.34.37>
- [16] B. S. Lee, The learn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the process of converted face-to-face course to online course within the circumstances of COVID-19,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9),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9.74>

- [17] Y. K. Kim, Y. G. Lim & Y. J. Boo, Factors Affecting the Practice of Coronavirus(COVID-19) in a Community Population,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8),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8.478>
- [18] J. S. Choi, D. M. Kim, Y. K. Kim, S. M. Jin & J. Y. Ha,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Needs for Improvement of Non-face-to-face Classes, Career, and Job Guidance after COVID-19,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7),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7.68>
- [19] K. S. Chung, H. H. Son & G. J. Yoon, Schools and Educational Communities in Times of COVID-19: Experiences of Parents with Early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7),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7.77>
- [20] B. T. Ahn, The Mise-en-scene Study of Parasite - Focused on the Composition,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9),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9.432>
- [21] S. J. Shin & S. J. Cho, Effect of the elderly's perception of art psychotherapy program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9),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9.200>
- [22] J. H. Park, Y. R. Oh & H. C. Cho, Factors Related to Subjective Happiness of Women in Later Life,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09), 2021. DOI:<https://doi.org/10.5762/KAIS.2021.22.9.190>
- [23] J. E. Lee & S. I. Kim, A case study on service activation strategy of online and offline integration stores in the non-face-to-fa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9.299>
- [24] J. S. Jang & J. H. Chung,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Cases of Non-Face-to-Face Online Craft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9.277>
- [25] W. H. Choi, N. J. Je, Y. M. Seo & D. Y. Lee, Factors Related to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9.229>
- [26] Mo Yanting, Xu Yujia & Y.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ystem Characteristics of Online Lectures on Lecture Satisfaction in the COVID-19 Crisi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CT Utilization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9.043>
- [27] N. Y. Kim & S. I. Kim, A Study on User Experience of Online Education Programs with Elementary Schools and Art Museums in Non-Face-to-Fa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8),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8.311>
- [28] J. H. Ha & S. I. Kim, A study on the increase of kiosk user experience in Non-face-to-face Era for the Elderly -Focused on the McDonald Kios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8),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8.285>
- [29] H. O. Kim, J. S. Yoon, J. H. Kim & H. Y. Jo, In the COVID-19 Enviro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Resilience and Adaption to College Life of Freshmen at K-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8),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8.001>

권 온(On Kwon)

[정회원]



- 2012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웰다잉, 웰에이징, 융합 연구, 문학

김 문 준(Moon-Joon Kim)

[정회원]



- 1995년 8월 : 성균관대 철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철학, 동양철학, 웰에이징

황 혜 정(Hye-Jeong Hwang)

[종신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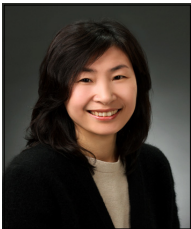
- 2010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예방의학과(의학박사)
- 2012년 3월 ~ 2018년 2월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조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보건정책, 감염관리, 웰다잉, 웰에이징

구 진 희(Jin-Hee, Ku)

[종신회원]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교육 석사
- 2010년 2월 : 동 대학원 공업(컴퓨터)교육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소프트웨어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소프트웨어공학, 빅데이터, 웰에이징

김 광 환(Kwang-Hwan Kim)

[종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웰에이징